## 30주년 건협에 바란다

# 건강생활 실천 등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

박 병 하
보건사회부 보건정책과 과장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던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된 이래 정부의 보건사업을 지원하면서 발전해 온 현재의 한국건강관리협회가 30회 생일을 맞이하여 장년이 되었다니 우선 축하의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생각해 보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30년 역사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6·25사변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시의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심각한 난제였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콜레라, 천연두 및 장티푸스 등 급성전염병에 대한 방역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 국민에게 만연되어 있던 각종 기생충에 대한 퇴치사업의 중요성이 학계, 보건의료계 등에서부터 제기되어 마침내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되고 그 이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학계 및 정부와 함께 기생충퇴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생충감염률을 3% 수준으로 격감시키게 되었다.

오늘날 건강관리협회는 1986년도 유사단체 통·폐합을 계기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 흡수되었다가 개칭된 것으로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향상 및 생활습관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전염성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건계몽사업 전개, 검진 및 각종 조사연구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기관으로서 다시한번 힘찬 도약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건협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국가보건정책에 의거한 건강관리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30주년을 맞은 오늘의 건협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보건의료계의 변화는 건협의 변신을 또 다시 요구하고 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인류는 보다 새로운 것, 보다 완전에 가깝고 발전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보건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류 최고의 목표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이 보장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곧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는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WHO는 "Target for Health for all 2000"을 제시하고 보건교육, 금연, 식생활개선 등 1차 보건예방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Healthypeople 2000"을, 일본은 "건강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협은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사 사업, 보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전개해 오면서 전국적인 조직망과 함께 우수한 검사시설과 많은 경험 등을 축적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질병의 특성으로 볼 때, 발견 후의 치료보다는 발병 이전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건강관리는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건강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에서 볼 때 한국건강관리협회의 3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이며 그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보건의식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예방사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3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린다.